제 1 교시

# 국어영역

|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SMAKO

○ 이 문제지는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항 수를 확인하십시오.
○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noqeli에게 있습니다.
○ 이 문제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로, 우화가 크게 번성했던 시기였다. 계몽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볼프는 우화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여 직관적인 인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교훈과 이야기의 조화로운 결합을 통해 도덕 명제를 복합적인 해석 없이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여기서 도덕 명제란 곧 우화의 기능 중 하나인 교훈의 전달을 의미했다. 우화는 그 자체로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낸다는 점과 문학의 교육적 효과를 중시한 당대의 기조에 직격이었다. 당시에 우화는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사고력을 견인하여 한 차원 너머에 있는 계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여겨졌다.

㉠ 괴테의 우화 『여우 라이네케』는 괴테의 온전한 창작 작품은 아니었다. 이는 1752년에 출간된 ㉡ 고췌트의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작품이다. 형식적으로는 이 산문에 6보격 운율을 부여해 서사시로 바꾸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했던 종교적이고 교훈적인 주석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일부 내용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에피소드를 첨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우화를 '알레고리'라고 해석했다. 알레고리는 표면적 내용의 심층에 다른 의미를 은유적으로 담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우화는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표현 양식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 시작된 자연과학적 지식의 폭발적 증대가 문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동물이 등장하는 비현실적 설정은 수사학적 알레고리로서 자연스럽게 수용되어 왔다면 이제는 이러한 존재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문학에 대해 이루어진 이러한 개연성에 대한 요구는 그 기원을 타고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주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역사가는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만 작가는 일어날 법한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함으로써 문학이 허구를 통해 보편을 전하는 예술임을 밝혔다. 즉 개연성은 문학창작을 정당화하는 개념이었다.

인간의 자연과학적 지식의 양과 질이 풍부해지자, 문학적 서사가 객관적 지식과도 합치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개연성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개연성은 크게 플롯 상의 개연성과 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개연성과 같은 내적 개연성과 작품 외 객관적 지식과 합치해야 한다는 외적 개연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18세기의 우화는 외적 개연성과 관련해 다시금 정당화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라이프니츠의 철학을 계승한 볼프 학파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를 구분했다. 즉 문학에 구현된 세계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질서와 다를지라도 이는 일종의 '가능한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세계는 우리와 사는 세계인 실세계와 더불어 신이 창조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계 중 하나이다. 현실 세계와는 달리 그 외 모든 세계는 가능성의 개념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 첫 번째로 비록 그것이 실재적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고유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의 본성과 움직임 그리고 법칙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을 내포하기에 모든 모순에서 자유롭다. 외적 개연성에 초점을 맞춘 우화 비판에 대해서 볼프 학파는 신의 무한한 창조력에 대한 긍정으로 대응하였다.

고췌트 또한 우화의 개연성에 관해 논하였다. 그는 개연성을 조건적 개연성과 가설적 개연성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에 따라 판명되는 것으로, 자연과학적 지식과의 비교를 통해 개연성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 한 작품의 세계관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는 개연성을 말한다. 그런데 자연의 일반적인 순리와 어긋나는 것은 고췌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췌트는 외적 개연성을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세계에 기초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괴테의 경우는 어떨까? 카스티의 우화시 『말하는 동물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처럼 지성을 갖고 있는 동물들을 보며 우리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그 동물들이 규정된 방식에서 어긋남이 없이, 즉 예외없이 합목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러한 행동 특성만으로 우화에게 요구되는 개연성이 충족된다고 생각했다. 작품 내 합리성에 대한 충족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고췌트도 마찬가지로 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괴테는 우화의 외적 개연성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여우 라이네케』를 개작한 괴테의 작품은 원본과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② 18세기 우화는 계몽을 지향하면서도 독자에게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교훈을 전달하였다.
③ 우화가 갖는 알레고리 기능은 대부분의 계몽주의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
④ 자연과학적 지식이 대두되면서 우화는 문학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화 문제에 봉착했다.
⑤ 볼프 학파는 신이 창조한 세계라고 해서 창조주의 능력에 근거하더라도 모든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았다.

2. 윗글을 바탕으로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마찬가지로 우호의 구조가 개연성을 띄지 않더라도 내적 개연성이 달성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② ㉠은 ㉡과 달리 무조건적 개연성이 충족되기만 하면 내적 개연성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③ ㉡은 ㉠과 달리 내적 개연성을 충족하지 않은 우화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④ ㉡은 ㉠과 마찬가지로 무조건적 개연성이 발견되는 경우라도 가설적 개연성을 만족하지 않으면 우화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이다.

⑤ ㉠과 ㉡은 모두 내적 개연성과 외적 개연성을 모두 확보해야 우화에 대한 진정한 정당성이 성립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3.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예술의 진실'과 '자연의 진실'의 구분은 괴테의 예술론에서 한 평생 반복되었던 중요한 대립 개념이다. 만약 누군가가 괴테의 우화에서 그것은 진실하지도 않고 개연적이지도 않다고 불평했다면, 괴테는 예술작품의 진실은 자연의 진실과는 다른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괴테에게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적 일관성에서 비롯되는, 예술을 통해서만 가능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묵살하는 태도임에 분명하다. 괴테에게 우화의 개연성과 정당성은, 예술작품 세계 안에서 규정된 방식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다.

① 자연적 진실을 예술적 진실과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괴체는 고쳬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지식에 대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② 진실의 유형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볼프 학파와 마찬가지로 신이 제작한 세계 가운데 가능한 세계를 차용하여 작품의 합목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③ 작품의 내적 일관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아, 괴테는 고쳬트와 마찬가지로 문학에 대한 자연과학의 개연성 요구를 모순없이 종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④ 모든 외적인 것들을 집어 던지고 묵살하는 태도로 보아, 괴테는 고쳬트와 달리 자연과학적 개연성 요구에 보다 대립적으로 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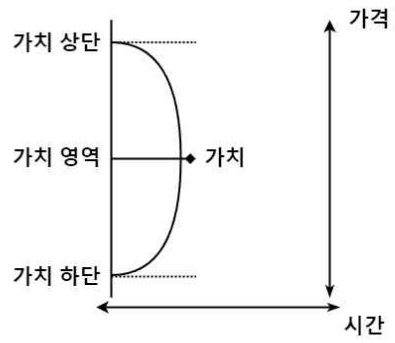
⑤ 우화의 서사가 합목적적으로 진행되는 것만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는 것으로 보아, 괴테와 고쳬트 모두 외적 개연성이 내적 개연성보다 부차적이라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시장(future market)에서 파생상품은 기초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고위험 부담이 크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거래(Trade)하는 거래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극단적 회의주의를 옹호하여 시장을 지배하는 누군가를 절대적 존재로 상정하여 시장 내부 전략의 원천적 무효성을 옹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장에 누군가의 손이 개입되는 이러한 외부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그 내부에 역사적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되는 '대략의 규칙'을 토대로 시장을 분석하는 유형의 거래자가 존재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분석' 관점을 수용하고 시장에 접근한다.

'경매 역학'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기반을 둔 기술적 분석 중 하나이다. 모든 상품은 가격으로 표시되는데 가격은 가치와 세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면 이를 정적 상태라 한다. 선물시장에는 '오를 것이다'에 배팅하는 구매자와 '내릴 것이다'에 배팅하는 두 진영만이 존재한다. 정적상태에서는 그 가치에 대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다. 가격이 가치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활동은 그 조치를 행하는 거래자의 능력에 따라 돌파 여부 또는 도달 범위가 달라진다. 시장은 시간에 따라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시작하는 활동'이 실패하면 '반응하는 활동'이 수반된다. 가령 가격이 가치로부터 위로의 괴리를 일으켰으나 판매자의 능력이 부실하다면, 가격은 가치로 회귀할 수 있다.

거래가 진행되면서 거래량이 축적되는데 가치는 본질적으로 거래량에 의해 결정된다. 경매 역학의 기본 모델은 시간 축과 가격 축으로 구성된 <그림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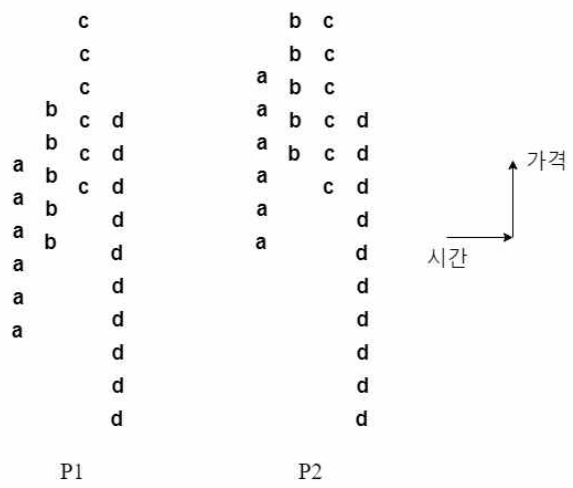

<그림1>

가치 영역이란 특정 기간 동안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가격 범위를 의미한다. 통상 그 범위는 표준편차 70%를 반영하여 상정하는데 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가치 영역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을 제공하기에 중요하다. 해당 영역 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는 지점을 가치라 부르며, 영역의 양끝은 각각 가치 하단과 가치 상단을 말한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하루마다 가치영역이 생성되는데, 필요에 따라 이들을 결합하여 복합 프로필을 형성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끌어낼 수 있다.

경매 역학에서는 ㉠ 일회성 프레임 개념을 통해 시장 구조를 파악한다. 균형으로부터 일회성 프레임이 구성되면 시장은 그 순간 불균형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의 프로필만으로는 구조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프로필들이 필요하다. 불균

형 시장에서 어떤 프로필이 직전 프로필보다 고점과 저점이 더 높으면 '강세패턴'이라 하며, 그 반대의 경우를 '약세 패턴'이라 부른다. 강세 패턴에서의 불균형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 프로필의 저점을 부수는 가격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불균형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오고 동시에 사용자 정의에 따라 '밸런스 영역'이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균형 시장, 즉 통합 시장에서는 시작하는 활동의 빈번한 실패로 인해 가격이 다시 가치로 되돌아가는 회전 거래가 주요 특징이며, 만일 방향성을 유지하는 추세의 힘이 생기고 유지된다면 밸런스의 극단이 제거되면서 시장은 새로운 불균형 국면에 접어든다.

시장 프로파일에는 30분마다 새로운 종류의 문자가 생성되는데,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후의 시장 행동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다.




<그림2>

<그림2>의 두 프로필은 모두 두 시간 동안 생성된 시장 행동을 나타낸다. a를 시작으로 P1과 P2는 모두 일중 강세를 표시했으나 c와 d에 의해 a가 나타내는 저점이 깨지게 되었다. 그런데 P1와 P2는 서로 일중 고점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와 만나는 양상이 다르다. 일중 고점과 저점은 모두 '강인성'과 '불충분성'을 만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지점에서 강인성과 불충분성은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 P1의 경우 c로 표시된 고점은 동일한 문자가 두 개 이상 존재하고, 이후 강한 거부가 발생했으므로 강인성을 만족한다. 강인성은 본질적으로 강한 반작용과 '완료된 조치'를 함의한다. '완료된 조치'는 해당 조치가 실행된 이후 그 영역을 재방문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P2의 일중 고점은 c에 의해 b의 잠재적 강인성이 차단되었고, 이후에 초기 하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불충분성을 만족한다. 이는 주로 구매자가 밀집된 가격대에 몰리면서 발생한다. 어떤 영역 내의 구매자가 약한 것으로 입증되면, 구매자 가운데 일부는 배팅에 의해 부여받은 자신의 포지션을 철회함으로써 거래 상태에서 벗어난다. '미완료 조치'의 특성으로 인해 P2의 일중 고점은 향후에 다시 재방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존에 강인성을 띄던 특정 지점은 향후에 그 성질이 변화되기도 한다.

**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극단적 회의주의자들은 대략의 규칙을 인정한다.

② 정적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달리 가치가 생성되지 않는다.

③ 가격과 가치 간 불일치 상황에서는 가격은 가치와 두 가지 관계를 가질 수 있다.

④ 가치 상단 또는 가치 하단을 돌파하면 시장은 균형에서 불균형 국면에 접어든다.

⑤ 일중 저점에서 불충분성이 발견된 경우라도 이후 그 성질이 변화하여 그 지점에서는 강인성이 충족될 수 있다.

**5.**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불균형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밸런스 영역을 정의해야 한다.

② 균형 또는 불균형으로 정의되지 않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강세 패턴에서 일회성 프레임이 종료되면 약세 패턴으로 전환된다.

④ 서로 다른 불균형 국면 사이에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동안 거된 통합 시장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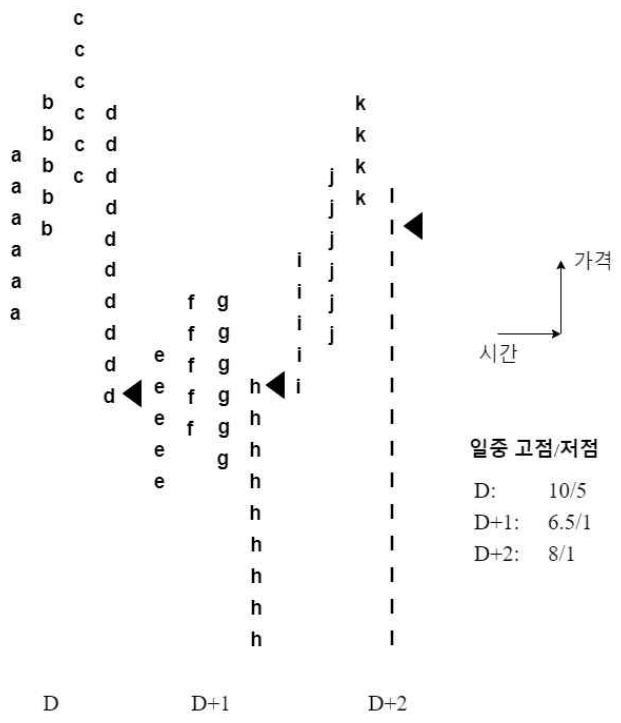
⑤ 동일한 가격 조치가 반영될 경우 일회성 프레임이 종료되어 형성된 밸런스 영역이 다시 불균형 국면에 돌입할 시기는 거래자에 따라 상이하다.

6. 시장 프로파일에 대한 윗글의 설명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3>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정확성'은 시장이 두 개 이상의 프로필로 구성되었을 때, 임의의 지점이 다른 특수한 시각적 지점을 정확히 참조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향성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발견된다고 본다. 특수한 참조 지점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전 프로필의 고점 또는 저점이 있다. 이는 해당 지점에서 포지션을 새롭게 취한 단기 투기꾼의 특성에 기인하기에 향후 이곳은 재방문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3>은 D에서 D+2까지의 3-거래일이 진행되면서 실행된 시장의 가격 조치를 시장 프로파일을 이용해 표현한 것이다.(단, <그림3>에 표시된 ◀는 일중 거래가 종료된 지점을 나타내며, D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일중 고점과 저점이 가리키는 가격은 각각 10과 5이다.)




<그림3>

① D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필에서 강인성은 총 두 군데에서 발견되겠군.

② D에서 D+1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필에서 불충분성은 발견되지 않겠군.

③ D+2 거래 기간 동안 형성된 프로필에서 정확성은 오로지 한 군데에서 발견되겠군.

④ D에서의 d에 의한 하락과 D+1에서의 h에 의한 하락에 대한 양상은 서로 차이가 있겠군.

⑤ 3-거래일이 모두 진행된다면, 정확성을 띄던 기존 지점이 불충분성을 만족하는 특성을 가지게 된 경우가 존재하겠군.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따를 때 너희는 나에게 아첨하지 말고, 물러나서 나중에 말하라."라고 하였다. 부열의 경계에서는 "나무가 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이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고 하였다. 이는 고대의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리였다. 백세 동안 좋은 정치를 하지 못한 것은 간언이 실행되지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의 치란과 흥망을 보려면 간언을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간언을 잘 듣는 자는 상벌을 잘 사용한다. 그래서 간언을 하는 사람을 벌하지 않고,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간언을 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그래서 상국(上國)에는 간언이 없고, 그 다음은 간언을 사용하며, 그 다음은 간언을 용납하고, 그 다음은 간언을 벌한다. 신하로 하여금 간언할 것이 없어서 간언이 없는 경우는 만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고 그 말을 실행하게 하는 경우는 천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비록 실행하지 않더라도 그 말을 용납하는 경우는 백에 하나이며, 신하로 하여금 간언하게 하고 그를 벌하는 경우는 열에 열이다. 그래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세력과 이익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강요된 것이다.

간언하는 사람을 상주고,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한다. 상을 주는 데 천금을 아끼지 않고, 벌하는 데 다섯가지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상은 이익의 창고이며, 형벌은 세력의 중심이다. 그래서 이익과 세력은 형벌과 상벌보다 큰 것이 없다. 따라서 사람은 위엄을 피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을 찾아가며,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고 상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면 간언이 이르게 된다. 간언이 이르게 되면 이를 상주고, 그러면 간언이 더욱 이르게 된다.

임금의 크기는 하늘과 같고, 그 존엄은 신과 같으며, 그 위엄은 천둥과 같다. 앞에는 이익이 없어 유혹할 수 없고, 뒤에는 세력이 없어 몰아칠 수 없다면, 누가 고통을 무릅쓰고 하늘을 거스르고 신을 거역하며 천둥을 맞서겠는가? 따라서 성품에 따라 간언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간언의 길을 통하게 하려면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오직 형벌과 상벌을 잘 사용해야 한다.

간언의 방식 중 직언은 임금이 듣든지 간에, 임금이 듣지 않든지 간에 해야 한다. 간언의 도리는 먼저 임금의 밝음을 얻고 나서 간언하면 안전하다. 임금의 밝음을 얻지 못하고 간언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이윤과 부열은 직언하고도 안전했으며, 용봉과 비간은 직언하고도 위험했다. 이는 시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안전하면 간언하고, 위험하면 간언하지 않는 것은 시기에 따르는 것이다. 안전해도 간언하고, 위험해도 간언하는 것은 시기에 따르지 않는 것이다. 시기에 따라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는다. 시기에 따르지 않고 간언하는 자는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을 간언하여 백 번 간언하면 백 번 듣지 않는다.

상을 주고 더욱 간언하게 하는 것은 이익 때문이다. 형벌을 하고 간언하게 이르게 하는 것은 위엄 때문이다. 상을 추구하지 않고 형벌을 피하지 않고 간언하는 것은 성품 때문이다. 성품에 따

른 것은 충의이다. 충의는 천금을 걸고 다가오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칼과 톱을 설치하여 위협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이 듣든지 간에 간언하고, 임금이 듣지 않든지 간에 간언하는 것이 직언의 도리이다.

그래서 ⓐ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다.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바르지 않다. 그래서 간언을 잘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을 다할 뿐이다.

간언에는 직언(直諫)을 '경(經)'으로 삼고, 설득을 통한 간언을 '권(權)'으로 삼는다. 경은 폐기할 수 없고, 권도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변론은 마땅히 싫어하지 말고, 기술은 마땅히 버리지 말고, 기회는 마땅히 피하지 말아야 한다. '변, 술, 기' 이 세 가지는 간언의 권이다. 이것을 잘 살펴야 한다. 만일 간언하려는 임금이 교만하고, 포악하고, 게으르고, 나약하다면 원칙만으로는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간언을 잘하는 자는 교만한 임금에게는 두려움을 일으키게 하고, 포악한 임금에게는 관용을 유도하며, 게으른 임금에게는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나약한 임금에게는 결단을 촉발시킨다. 균형추의 무게로 그 마음을 흔들고, 머리카락 하나의 위태로움으로 그 감정을 일깨운다. 이것은 '위세로 제어하는 방법'이다. 명예욕이 있는 자는 두터운 이익으로 끌고, 잔재주를 좋아하는 자는 그 반대 세력으로 유도한다. 이것은 '미묘한 풍자'의 방법이다. 내가 가고자 할 때는 나를 따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내가 가고자 하지 않을 때는 나를 따를 수 없게 한다.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토끼를 쫓듯, 또는 급류가 깊은 못을 만난 것과 같다. 이것은 '이익으로 유혹하는 방법'이다.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내가 분노하게 만들어 스스로 검을 눌러 한숨 쉬게 만든다. 이것은 '이성으로 자극하는 방법'이다. 이것들이 곧 '설언(說諫)의 권도(權道)'이다.

- 유한준 『간언』 -

**7.** 글쓴이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① 나라의 치란과 흥망은 군주의 간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② 간언하는 사람에게 상을 줌으로써 간언하지 않는 사람을 간언에 이르게 한다.

③ 성품을 쫓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강요된 간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④ 안전하기 때문에 간언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간언은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태도에서 기인한다.

⑤ 시기에 따라 위험해서 간언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8.** 윗글과 비교하여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역사적으로 보면, 간언의 시기를 잘못 잡아 임금의 노여움을 사거나, 정치적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비간은 직언을 하다가 상(商)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紂王)의 노여움을 사서 처형당하였다.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가 전체의 안녕과 번영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윤과 부열이 직언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를 이끌어 냈던 사례는 시기의 적절성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용봉과 비간은 시기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결과적으로 나라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

① 간언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입장을 같이한다.

② 비간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는 점에서 ⓐ와 견해를 같이한다.

③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하지 않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와 의견을 같이한다.

④ 이윤과 부열의 직언은 시기가 적절했던 반면, 용봉과 비간은 그렇지 않아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와 달리 나라의 치란과 흥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⑤ 비간이 간언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여기고 간언했어도 자신의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와 마찬가지로 책임의 요건을 간언의 여부로 간주한다.

**9.** '설언(說諫)의 권도(權道)'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직언의 방식은 변화무쌍하지만 그렇지 않은 간언은 불변의 도리로서 이해해야 한다.

② 간언을 듣는 자에 태도에 따라 직언의 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해야 한다.

③ 신하는 자신의 위세를 낮추어 군주의 교만함과 포악함을 억누를 수 있다.

④ 간언을 잘하는 자는 간언의 권을 통해 임금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이다.

⑤ 간언을 잘 듣는 자라 할지라도 신하는 설득을 통해 군주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해야 한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좋은 데이터는 명확한 기준과 적절한 측정절차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특정한 양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값을 실험적으로 얻는 과정을 [측정] 이라 한다. 측정의 본질은 알고 있는 것과 알고자 하는 것의 비교이므로 주관에 따른 차이가 없어야 한다. 측정의 결과인 측정결과는 하나의 측정값과 측정불확도로 표현된다. 요컨대 기준과 비교해서 측정량의 값을 결정하는 측정을 통해 얻어낸 측정결과는 측정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 이러한 본질을 잊어버리면 동일한 것을 측정해도 다른 결과가 산출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측정을 수행한 결과가 정확하기 위해서는 표준이 필요하다.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을 측정표준이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간 교역을 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제의 중력, 가속도 또는 부력처럼 측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 때문에 정확한 질량 측정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분동을 이용하여 저울을 교정하고 사용해야 한다.

표준은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문사회 수준은 측정표준을 포함하지 않지만, 측정과 관련이 깊다. 참조표준은 정확도와 신뢰성이 평가된 좋은 데이터를 공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종 24년에는 금영측우기를 길이 1자, 원통의 지름 7촌으로 만들고, 이것을 서울에서는 서운관에 그리고 지방에서는 객사의 뜰 가운데 세워 주척(周尺)으로 척, 촌, 푼을 측정하여 기록하게 했다. 주척으로 측정하여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기의 규격과 측정 위치를 지정하여 성문표준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정확성과 일관성이 보장된 참조표준을 통해 지역별 또는 연도별 평균 강우량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측정단위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도량형국(BIPM)에서는 SI단위를 제정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측정기를 교정하여 국가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유지하도록 돕고 있다. 가령 엘리베이터 검사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M급 분동이나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E급 분동은 교정을 통해 측정표준과의 소급성을 확립하고 사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치하는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연구소의 정밀저울과 일반가정집의 체중계가 정말 동일하게 정확한 것일까? 교정을 했다면 이들은 모두 정확한 것이 맞다. 정확성의 보장은 오로지 소급 과정에서만 이루어진다. 다만 두 저울 간 측정오차, 즉 측정불확도에 차이가 있다.

제품의 물성 및 화학성분 확인이나 측정장비의 교정에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표준물질 값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 물질은 일종의 답안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증표준물질은 표준물질에 포함되는 것으로 "측정학적으로 유효한 절차에 의해 특성화된 표준물질"로 정의한다. 즉, 특성화를 해서 인증값이 표시되었고, 불확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인증값의 측정소급성이 있다면 인증표준물질이라 부를 수 있다.

10. [측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기준이 없어서는 안된다.
② 측정값에 따라 측정불확도가 달라진다.
③ 상대적 차이를 없앰으로써 얻어낸 이론적 예측값이다.
④ 측정불확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도 서로 다른 측정값이 나올 수 있다.
⑤ 인문사회 수준에서도 측정을 위해서는 참조표준을 정의할 필요성이 생긴다.

10.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성문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세계적으로 동일한 측정표준을 채택하는 것만으로 측정호환성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③ 소급을 받으면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측정오차 문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④ 측정기준이 같다고 해서 좋은 데이터가 갖는 소급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⑤ 성문표준을 통일하여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해도 측정표준에 따라 참조표준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물질 개발은 (가)와 같은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한다.

(가) 후보물질 제조→ 균질성 평가→ 특성화→ 불확도 산출 →비교시험→ 소급성 인증

이차전지 핵심 중 하나인 양극제는 다양한 방식이 사용된다. 그 중 하나인 X양극재는 A사의 노하우를 일정 부분 공개하면서 후보물질을 제공하여 B연구소에서 표준물질 개발 절차를 완전히 거쳐 인증받게 되었다. 한편 Y온도계는 C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한 것으로, 해당 온도계를 얼음버킷에 담궈서 0°C를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보정값 ±0.01°C를 적용했다.

① X양극재는 표준물질이면서 동시에 인증표준물질에 해당하겠군.

② X양극재는 측정소급성을 인증받기 전에 특성값과 불확도 표시 절차를 거쳤겠군.

③ Y온도계는 인증표준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표준물질에도 포함되지 않겠군.

④ Y온도계는 국가측정표준에서 측정된 결과가 하나의 측정값과 하나의 측정불확도로 표현되지 않는다.

⑤ X양극재와 달리 Y온도계는 소급성이 확립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데이터의 정확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겠군.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만은 칼로리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비만대사수술은 비만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부작용이 심하여 보통 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만 권장된다. 항비만은 비만 예방, 관리 및 치료법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최근 학계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지방 세포는 인체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 지방 조직을 이루는 지방 세포는 지질이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고, 필요 시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저장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 백색 지방 조직(WAT)는 신체의 체온 조절과 에너지 저장에 관여하는 필수 기관으로, 아디포카인을 분비하여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내분기 기관으로도 작용한다. 또한 갈색 지방 조직(BAT)은 주로 견갑골 영역에서 발견되며, 다량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다낭성 지방세포로 구성된다. 이 조직에서 UCP-1가 발현되면 열을 발산하게 되는데, 베이지 지방 세포 또한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세포는 자극에 노출될 때 백색 지방 조직 내에서 형성되는 열 생성 지방 세포의 일종이다.

비만은 지방세포의 증식에 따라 에너지가 신체에 축적되면서 발생한다. 지방세포의 생성은 전사인자와 신호전달 네트워크에 의해 조절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비롯한다. 주로 아디포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PPAR는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에 의해 유도되는 물질로서, PPAR의 활성도가 높을수록 지방 세포의 성숙, 지질 대사 등이 가속화된다.

WAT은 BAT과 유사한 열 생성 특성으로 인해 비만의 잠재적 치료 표적에 해당한다. PRDM16과 같은 성장 인자는 PGC-1σ의 발현을 증가시켜 베이지 지방 세포와 BAT의 형성을 촉진한다. 또한 PGC-1σ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에 관여하고 UCP-1을 활성화하여 조직에서 열과 같은 에너지 방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제는 특히 인체가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WAT이 BAT과 유사한 특성을 띠게하는 [갈색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WAT의 갈색화는 에너지 소비를 늘려 지방 증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1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비만대사수술은 고도 비만을 예방하는 방식 중 하나이다.

② 지방 조직은 지방 세포에 지질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③ 지방 세포는 지방 조직과 달리 체온 조절 기능이 없다.

④ 베이지 지방 세포 수의 증가는 비만의 원인이 된다.

⑤ WAT의 신진대사 과정에서 PPAR이 관여할 수 있다.

14. 갈색화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BAT의 수를 줄이면, 지방 세포 수 감소에 따른 비만 억제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② PRDM16의 활성을 자극시키면, UCP-1로부터 PGC-1α가 유도될 것이다.

③ PGC-1α의 활성을 촉진시킬수록 미토콘드리아 내 베이지 지방 세포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④ UCP-1의 활성을 억제한다면, 백색 지방 세포의 증식속도가 감소될 것이다.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PPAR의 증가 또는 감소는 WAT의 갈색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보 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사는 모든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 정보를 통틀어 일컫는 용어이다. 그 중 아커만시아(A), 락토바실러스(L), 비피도박테리움(B), 뮤시니필라(M)는 각각 다음과 같은 경로에 관여한다.

A: UCP-1의 작용을 억제함
L: PRDM16의 작용을 방해함.
B: 섬유아 조절인자에는 작용하지 않고 PPAR의 작용을 억제함.
M: PGC-1α와 아디포카인의 생성을 촉진함.

① A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방해하여 BAT의 형성을 저해하므로 비만 치료 방법으로 부적합하겠군.

② L이 과다하면 UCP-1의 활성과 베이지 지방 세포의 형성이 촉진되어 WAT의 갈색화가 더 잘 일어나겠군.

③ B와 아디포카인 유도제를 마이크롬바이옴 연구에 이용한다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를 자극하지 않고도 체내의 신진대사를 조절할 수 있겠군.

④ A가 과다할 때는 M이 과다할 때와 달리 BAT에서 열 방출이 발생하지 않겠군.

⑤ L과 M이 모두 과다하면 섬유아세포 성장 인자로부터 PPAR이 만들어지지 않겠군.

* 확인 사항

○ noqeli의 허락 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